

##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1-11)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특별히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추수감사절은 한해간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한해동안 받은 과일들을 진열도 하고 그랬다. 우리가 만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할 것이다. 이런 열매도 드리고. 그런데 앞에 놔 놓은 것은 다 마켓에서 산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진열을 하며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이다. 마켓에서 산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돈 아무리 쥐도 못 사먹는다. 이런 더 큰 믿음으로 과일을 진열을 하였다. 올해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것의 메시지이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가지가 대표적이다. 그것이 잘 아는데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누가 스스로 지어낸 소설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고 약속이다. 그 말씀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응답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7천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 중에 한가지가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진짜 지키면 역사 일어난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저주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 언약을 잡고 유월절 지키면 우리가 노예 되었던 곳에서 해방된다. 이것은 지켜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다. 지키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수장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첫째날 14일 저녁에 시킨다. 달이 첫 해의 첫 하루가 시작되면 어린양 한 마리를 지정해서 그 양을 그 양의 전체 무리에서 분리해서 놓는다. 이것은 14일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를 것이다. 14일간 뭐냐하면 이 양이 무엇이며, 이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14일째 되는 저녁에 잡으면서 그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잡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일동안 묶어 놓고 묵상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7일간은 무교병을 먹는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앞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을수도 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죽이심으로 행할 그 구원을 지금부터 지키라는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야 할 언약이 양의 피이다. 제일 첫 번째 유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저녁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 집들은 안 죽었다. 너는 너의 조상들의 이 날 저녁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양을 죽여서 만드는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렸던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그 약속의 피가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순절이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이다. 유월절 시작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날도 잊지 말고 기념을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날도 잊지 말고 기념해라. 매년 이것을 지키게 했는데, 1,500년 이후에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 놀랍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켰을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유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를 잊지 말고 기념해라.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그냥 지키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예언이고 약속이다. 이것이 성취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후 첫날이었다. 안식일이면 49일이야 되는데 50일째를 지키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식일이 아니고 안식후 첫날이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고 있다. 이 때는 전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이다. 빚진 것 그날 이후로 안 갚아도 된다. 빚진 것 때문에 어느 집에 노예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완전 해방이다. 이 희년도 50년째이다. 49년째가 아니고 50년째이다. 안식년 다음 첫해를 말한다. 아주 의미가 있다. 그 날에 전부 해방을 받았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날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안식후 첫날, 곧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날 모여야지, 왜 율법에 잡혀있는 안식일에 모여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수장절이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 걷이를 한 다음에 보리 한단을 드리는 날이다. 첫 이삭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하라고 하는것마다 전부다 그리스도이다. 수장절은 가을에 포도라든가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창고에 넣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보좌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한다. 이 기간에 일주일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게 했다.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여 천국권세 누리기 바란다.

### 1.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다. 당시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이 오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랜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입이 열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만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 없다고 하니까 목욕도 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다고 하셨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셔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이다.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 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격려해야 한다. 사람을 녹이는 방법은 내 마음을 주는 것이다. 전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우리 이야기 중에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다. 일종의 게임이다. 저기 걸어가서 사람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는가를 내기하자고 했다. 태양이 좋다. 너먼저 해라 했다. 그래서 바람이 옷을 날려버릴려고 씨게 불었다. 추운데 옷이 날라가도록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코트를 움켜 쥐었다. 바람은 그래서 실패하였다. 이제 태양의 차레인데 온도를 높이니까 스스로 벗어 버렸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언약하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족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당신 자신을 중으로 희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러 왔다는 메시지이다. 마가복음 10: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을 놓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몇주전에 본 마리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 같다. 최고의 물품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

러니 감히 손으로는 그 발도 씻을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통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갔으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이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눈이 열려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올인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값비싼 향유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할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알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클릭이 되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손으로 씻어 드리는 것도 너무 황송해서 머리털로 씻어 드렸다. 마리아의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무것도 아가울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 뿐 아니라 모든 만물도 살아난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바란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야 한다. 우리가 부족하게 많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 귀하다 생각한다. 거기에 치유가 있는데, 거기에 내 자신의 치유도 거기에 있다. 전도의 문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출 때 열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잇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더 이해하는 축복이 잇기를 바란다.

## 2.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한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한다. 세상적으로 사랑해서 옆길로 가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수 있다. 그런데 그 중,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선을 긋는 시간이었다. 그 때 모세는 약간 방황중이었다. 모세는 이미 복음알고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썼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창세기 3:15, 21절같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복음 알고 있는데 인생이 시작이 안되었다면, 방향이 없으니 시작이 안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그에게는 평생 기도제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기도는 많이 했을 것이다. 어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혹시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났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 전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 야곱이 대단한데, 요셉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창세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 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채색옷도 입고 일하러 안 보냈다. 옆에 두었다. 이런 영적인 특혜가 있던 요셉이었지만 그 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향 없었다. 미래에 대해서 답 안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꿈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미래에 대한 답이고 방향이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하고 생각과 방향이 같아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과 맞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 누리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지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은 전부 237이다. 모세에게도 237, 다윗에게도 237, 아브라함 시작하자마자 237, 노아는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노아 살릴려고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언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완전 237 전세계가 지것이 된 것이다. 사도바울 처음 만날때부터 이방인, 237이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다. 그럼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가? 모든 믿는 너희는 237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내 소원이고 언약이야, 그것이 내 예언이야, 그것이 내 축복이야. 누가 뛰어난 전도자가 하는게 아니라 전부 다 해야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우리가 전부 237 다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집에서 혼자 237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수도 있다. 마음의 문제이다. 이것이 응답의 과정이다. 내 기도보다 내 생각이 237로 바뀌는 것이 더 근본적인 기도 응답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 안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게 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러면 237 되면 자유하게 된다. 기도 안해도 237 되면 정복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전에는 마음이 좁으니까 넘어갈수 없었는데,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라. 237 되면 정복하고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그리스도, 우리의 눈은 237 되어야 한다. 이런 인생을 딱 살고, 나도 237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론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여기에 드리겠습니다. 올인. 하나님은 그 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진다. 내게 필요한 응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단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없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것을 향하여 갈 때, 내가 할 것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꾸 강조하는 것이다. 근본 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237 못 되게 하는 것은 딱 하나 사단이 하는 짓이다. 누구든지 237 되면 인생이 넓어지고 내가 맺혀있는 것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치유되는 것, 넘어서는 것 아닌가? 내 평생 내가 땅에 있어도 큰 인생 사는데, 내가, 안그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지금부터 237, 평생 내가 방 안에 있어도 237. 당연히 사단이 방해한다. 그래도 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언약 잡고 있으면 축복의 그날이 오는 것이다. 그것을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날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싶은 그 날을 주시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의 기도도 이렇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은 본래 수장절이라는 것과 딱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살려서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사상을 이어 받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안식일, 일주일 전에 하루를 드러라, 이것을 주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한해간 주신 열매에 감사하기 바란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내년에는 더 많이 주세요. 자녀 축복, 경제 축복, 내년에는 더 많이 주셔서 더 큰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가족도 사랑하고 돌아보고, 친구도 이웃도 돌아보고 복음의 문을 여는 축복이 잇기를 바란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모세나 요셉처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통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된다. 실수하게 되고 인생 쪼그라든다. 생각이 하나님과 딱 통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